

■ 서평 ■

에번 오스노스,
『야망의 시대-새로운 중국의 부,진실,믿음』

박지혜

중국 현대사에서 ‘십년동란(十年動亂)’ 혹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1966년부터 1977년까지 문화대혁명의 여파는 중국인들의 개인의 꿈 그리고 삶을 잃게 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개인의 부의 축적은 허락되지 않았으며, 정치적인 선전과 검열 앞에 무력했다.

1949년 신중국 성립이후 과도한 중공업 정책(일명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최악의 대기근이 겹치면서 중국인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공산당의 내부에서도 등소평과 유소기 등이 자본주의를 일부 받아들여자는 ‘실용주의’ 노선이 등장하였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자신의 권력에 위기를 느끼고 홍위병들을 조직하여 ‘문화대혁명’이라는 극좌파 정치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실용주의’ 노선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며 공격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 전역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일시에 중국 사회는 경직되었다. 이에 중국인들은 홍위병의 통제와 해결되지 않는 기근에 시달려야 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광풍(狂風)은 마오쩌둥이 1976년 사망함으로써 끝을 맺었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오명처럼 중국사회와 중국인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실용주의’ 노선을 주장했던 등소평(鄧小平)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과 “일부 사람을 먼저 부유하게 하라”라는 뜻의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하여 1978년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후 급속도로 중국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국제사회에서 ‘G2’로 불리울만큼,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더 나아가 최근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폐막식에서 시진핑(習近平)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는 의미로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국가의 전망을 9번이나 언급했다.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길’을 걸으며 ‘중국정신’을 지향하고 ‘중국의 힘’을 응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제 ‘중국의 꿈’이라는 단어를 당당하게 언급하며 강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에번 오스노스(Evan Osnos)는 ‘잃어버린 10년’ 이후 이룩한 중국의 경제 성장 시기를 두고 ‘야망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야망’이라는 사전적인 단어는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이다. 중국인들은 이제 문화대혁명의 ‘십년동란’ 삶을 딛고 일어나 ‘야망의 시대’에 들어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인들은 이제 개인들도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개인의 부를 축적할 수 있으며, 거의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 아래 놓여 있던 자유를 조금이나마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자유가 확대되는 와중에도 공산당은 완전한 자유를 수용하는데는 줄곧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진핑이 제창한 ‘중국의 꿈’은 ‘야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국인 ‘개인의 꿈’과 얼마만큼 공존할 수 있을까?

에번 오스노스는 현대 중국에 정통한 미국출신의 『뉴요커』지의 기자이다. 그의 이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번 오스노스는 『뉴요커』지 중국 특파원 시절 이전에는, 「시카고트리뷴」지의 베이징 지국장으로 일하면서, 이때 쓴 연재 기사로 2008년 동료 기자들과 함께 풀리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아시아를 주제로 탁월한 저널리즘을 발휘한 기자에게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오즈번 엘리엇 상, 젊은 저널리스트에게 수여하는 리빙스턴상, 그리고 뛰어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수여하는 미러상 등을 수상했다. 기자로서 화려한 수상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특히 중국과 아시아와 관련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오스노스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8년간 『뉴요커』 지 중국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에 체류했고 중국 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급격한 변화를 직접 경험한다. 또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중국의 모습을 이해함에 있어 변화하는 중국 그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였다. 그는 8년 동안 중국에서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야망의시대』를 집필하였다. 『야망의시대』는 기존 서구의 중국 분석서와는 다르게 저명한 경제학자에서부터 거리의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국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며 온갖 인간 군상의 삶을 마치 그들의 일상 사진을 찍듯 논픽션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노력의 결과는 2014년 전미 도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야망의시대』는 부·진실·믿음을 주제로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 ‘부(富)’에서는 개인의 야망을 실현하는 중국인들의 삶을 풀어내고 있다. 타이완의 유망한 군인이었으나 중국으로 전향하여 중국 최고의 경제학자로 성장한 ‘세계은행’ 전 부총재 린이푸(林毅夫)의 이야기, 시골 출신이었지만 우연히 온라인 데이트 사업을 시작하여 나스닥에 상장하기에 이른 공하이옌(龚海燕)의 이야기, 한때 중국의 ‘크레이지 잉글리쉬’ 열풍을 불러일으킨 리양의 삶을 동경하는 중국인 청년 마이클의 이야기 등, 불과 40년 전만해도 허락되지 않았던 개인의 부와 꿈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부 ‘진실’에서는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와 이중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도 “이 책은 야망과 권위주의라는 두 가지 힘의 충돌을 이야기 한다”라고 저자가 밝히고 있다. 중국은 중국인들에게 부와 번영을 주겠다는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앙선전부’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검열하며, 개인의 삶을 통제한다. 중국공산당의 언론통제와 검열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국 유명 여성 언론인 후수리(胡舒立),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중국 공산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중국 반체제인사 류샤오보(劉曉波), 예술을 통하여 자유를 갈망하는 아이웨이웨이(艾未未) 등 중국공산당 체제에 도전하고 좌절하는 유명인사 이야기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예번 오스노스는 서구가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는 중국의 청년 지식인 당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당제는 중국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공산당의 한층 강화된 애국사상 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중국의 부와 번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이 젊은 청년은 중국에 대한 서구민주국가의 중국에 대한 왜곡보도와 편견에 대해 분노하며 <중국이며,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애국적 동영상을 올렸다. 온라인에 공개된지 일주일 반 만에 1백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젊은 중국인들의 열광을 이끌어 냈다. 중국이 부와 번영을 약속하면서 생긴 다양한 중국인들의 행보를 소개함으로써 서구민주주의자 입장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지키려는 저자의 노력이 보인다.

3부 ‘믿음’에서는 중산층 말단에 위치한 사람들이 현재의 중국을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도 이제는 중국공산당이 만든 주어진 현실에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개인의 야망에 초점을 맞춰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며, 한편으론 개인의 도덕성 해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평범히 살아가는 중국인들도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커지고 있다. 최남단 도시의 한 시장에서 일어난 차에 치인 두 살배기 아이를 행인들이 외면했던 사건은 중국인의 도덕성 해이라는 큰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일부 중국인은 중국공산당의 검열을 무릅쓰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공자’를 이용한 중국공산당의 대대적인 문화사업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야망의 시대』는 앞서 언급했지만, 중국의 현재를 이해함에 있어서 서구민주주의자 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구민주주의자 입장에서 중국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현재 중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중립적으로 보려는 저자의 노력이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면서도 독자에게 다양한 이해의 관점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중국사회에서 간과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농민과 농민공이다. 중국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찌면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민 계층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노동자로 살고 있는 ‘농민공(農民工)’ 계층을 언급하지 않고 과연 중국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든다. ‘야망의 시대’에서 그들도 중국공산당에게 부와 번영을 약속 받았을까? 야망을 실현했을까? 농민과 농민공에게 있어 ‘중국의 꿈’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 아쉬움이 든다.

중국정부는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강대국의 면모와 자신감을 드러내지만, 공산당의 부정부패, 빈부격차, 지나친 맹목적인 부의 좇음으로 인한 도덕성의 해이, 인권탄압 등 약점을 극복하지 모습들을 보면 강대국으로서의 자신감이 한편으론 허세로 보이기도 한다. 공산당이 꿈꾸는 중국과 중국인 개인이 꿈꾸는 중국은 확실히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동상이몽 때문일까? 우리나라와 중국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긴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에 대해 단편적인 모습들만을 보고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두려워하면서도 중국인에 대해서 종종 회화화하고 무시하기 일쑤다. 이러한 우리네 시각에 대하여 『야망의시대』를 통해서 중국공산당 권위주의와 개인의 야망이라는 충돌 속에 격동하는 중국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원대학교, aperion@naver.com